

한국어 두자어의 형성과 사용 양상*

이 선 영

(홍익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두자어의 생성 방식과 그 생성 원인, 사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두자어는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절단하여 만든 형태로, 원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약칭어라고 할 수 있다. 두자어가 생성되려면 풀어쓰기와 같은 음절의 해체가 가능해야 하고, 의미에 있어서는 여타 약칭어에 나타나는 의미의 응축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됨을 보았다. 그리고 두자어의 생성은 원래 통신언어에서 출발하였고 보고 있었으나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용례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외계어나 야민정음 등 언어유희와 같은 통신언어는 일시적으로 쓰이다 사라진 반면, 두자어는 그 표기의 간결성과 의미의 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두자어의 사용 양상으로 두 가지를 보았는데 먼저 두자어가 제시되고 이에 원 단어를 찾아가는 방식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거나 검색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원 단어로 두자어를 만드는 방식은 금지어나 금기어, 비속어 등을 대신하여 쓰이는 경우, 의성의태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였다. 어떤 단어가 필요하여 생성되었다가 사회성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 한국어에서 두자어와 같은 약칭어가 생성되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 역시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 두자어, 약칭어, 음절 해체, 의미 응축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머리말

최근 한국어 단어의 생성 방식을 보면 2000년대 이전에 별로 쓰이지 않았던 형식의 단어들(이)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유어 혼성어와 약칭어의 형성도 그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자주 눈에 띄는 언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되어 별로 언급되지 않고 논의되지도 않는 현상이 있다.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연결하여 표기한 후 그것을 원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형태가 그러하다. 웃음의 뜻으로 쓰는 ‘ㅎㅎ’, ‘감사’의 의미로 쓰이는 ‘ㄱㅏ’ 등이 그 예이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 모아쓰기 형태의 음절 단위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연결하여 쓰는 새로운 형태의 표기인, 이른바 ‘두자어’는 어떤 특수한 매체나 특수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형태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행어처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언어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표기가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 쓰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자어의 생성 원인과 그 사용 양상, 기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두자어의 개념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통신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생겨났는데, 그것의 특징은 ‘구어적 문어’, 즉 음성으로 전달되는 대화체 구어를 문자로 전사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어로 구어의 생생함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 즉, 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구어적 요소를 표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두자어 역시 그러한 이유와 관련하여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논의에 앞서 ‘두자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두자어는 원래 우리말에서 쓰이고 있었던 표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보인다. 먼저 한국어의 ‘두자어’ 표기가 영문자 표기에서 나타나는 ‘acronym’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https://www.oed.com/>)에 따르면, 영어 ‘acronym’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① A group of initial letters used as an abbreviation for a name or expression, each letter or part being pronounced separately; an initialism (such as ATM, TLS).
- ② A word formed from the initial letters of other words or (occasionally) from the initial parts of syllables taken from other words, the whole being pronounced as a single word (such as NATO, RADA).

‘acronym’ 즉 ‘두자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이나 표현의 약칭어로 쓰이는, 첫 글자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ATM’이나 ‘TLS’가 그 예이다.¹⁾ 이렇게 각 음소가 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특별히 ‘두문자어(initi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 의미는 단어들의 첫 글자 또는 다른 단어들의 음절 첫 부분에서 가져와 만든 말이라는 뜻으로, ‘NATO, RADA’가 그 예이다.²⁾ 이것은 첫 번째 경

1) ‘ATM’은 ‘Automated Teller Machine’에서, ‘TLS’는 ‘Transport Layer Security’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말이다.

2) ‘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 ‘RADA’는 ‘Royal Academy of Dramatic Art’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우와 달리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한 단어처럼 읽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어떤 구나 문장의 첫 글자들을 모아 약칭어를 만들 때 그 약칭어가 한 단어처럼 발음되면 ‘acronym’으로, 각각의 음소 그대로 발음되면 ‘initialism’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둘을 통칭할 때는 ‘acronym’이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영어로 기관명 등을 표현할 때 유사한 방식의 ‘acronym’이 적지 않게 확인되는바,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그 예이다. 전자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고 그 자음 그대로 읽기 때문에 굳이 세분화하자면 ‘initialism’의 예가 될 것이고, 후자는 일상적으로 ‘케리스’로 읽기 때문에 ‘acronym’의 예가 된다 하겠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도 영어를 바탕으로 한 두자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은 영어식 두자어의 일종으로 이를 한국식 두자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식 두자어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두자어(頭字語)’라는 용어 자체에 대하여 본다면, 그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두자어’란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두자어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두자어’란 단어를 우리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김명희(1997)에서는 두자어가 일반적으로 구성 단어들의 두자들을 취하여 형성된다고 보고, ‘사범 대학’이 ‘사대’가 되고, ‘한국 대학생 총연합’이 ‘한총련’이 되는 등의 예를 다루었다. 손남익(2007)에서는 1960년대 신문에 사용된 두자어를 검토하였는데,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두 단어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 그리고 세 단어가 합쳐질 때 세 단어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 이것들을 두자어라고 칭하였다. 그래서 ‘생활필수품목’을 줄여 ‘생필품’이라고 하거나 ‘갑종 근로 소득세’를 줄여 ‘갑근세’라고 하는 등의 현상을 두자어로 다루었다. 원자혜(2013) 역시 두자어를 기본 단어의 첫 글자

를 줄여 형성한 것으로 정의하여 다루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두자어(頭字語)의 ‘자(字)’는 굳이 따지자면 ‘음절’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 논의들에서의 ‘두자어’를 ‘두음절어’로 지칭하고 다른 논의들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김정윤(2020)에서는 두 단어 이상의 본말로부터 각 단어의 첫음절을 따서 만든 단어를 두음절어라 보고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의 현상을 다루었다. 김상민(2021)에서도 두음절어는, 구나 문장 단위에서 일부 또는 모든 어절의 첫음절을 취하여 만든 단어라 보고 ‘폰꾸(←폰꾸미기)’, ‘내돈내먹(←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은 음식)’ 등의 예를 다루었다. 권경녀(2021)에서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음),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함)’ 등의 예를 두음절어로 다룬 바 있다. 이 논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약칭어는 한자어에서뿐만 아니라 고유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흥미롭다. 원래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첫음절들을 모아 약칭어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다. 주로 한자어를 줄여 이룰 때 쓰이는데, ‘교육 대학’을 줄여 ‘교대’라고 하거나 ‘선거 관리 위원회’를 줄여 ‘선관위’라고 하는 식이 그러하다. 이를 가리켜 특별히 머리에 오는 첫음절들을 줄여 만들었다 하여 위의 논의들에서처럼 ‘두음절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 실습생’을 줄일 때 단어 첫 글자들을 따 ‘교실’이라고 하지 않고 ‘*교생’이라고 하고, ‘식품 의약품 안정청’을 줄여 부를 때 각 단어의 첫음절들을 따 ‘*식의안’라 하지 않고 ‘식약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음절들이 모여 약칭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이러한 유형의 단어들 전체를 ‘두음절어’라 부르는 것은 그 단어들의 속성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어에서 약칭어를 만들 때 원 단어나 구에서 어떤 음절을 선택하게 되는지, 단순히 위치에 따른 선택인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는 음절에 대한 선택인지 등을 정리하여 규칙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 중 일부 단어의 특징만을 반영하는 ‘두음절어’라는 용어로 이 대상 전체를 부르기보다는, 원 단어나 구를 ‘줄여 이르는

말’이라는 전형적인 단어의 속성에 기대어 ‘약칭어’라고 통칭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름이라고 본다.³⁾ 이처럼 두음절어는 약칭어 가운데 한 가지 유형으로 음절 단위 표기를 하는 한국어의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문자 구의 첫 음소들을 모아 만든 단어인 ‘acronym’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앞선 논의에서의 ‘두자어’ 또는 ‘두음절어’란 개념은 초성의 문제가 아닌, 첫음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음소 단위의 첫 자음에 대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결합하여 만든 형태를, ‘두자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지칭하고 다른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강옥미(2003)에서는 ‘두자어’의 문제를 ‘극단적인 줄여쓰기’로 지칭하였고, 이정복(2016)에서는 ‘자음만으로 줄여 적기’라 지칭하였다. 이재현(2010:32~36)에서는 이를 ‘머리글자말’로 지칭하고, ‘ㅇ·ㅅ(←연세), ㄱ·ㄴ·ㄷ(특정한 사람의 이름)’ 같은 형태의 머리글자말은 현대국어에서 문어나 구어를 막론하고 실제로 사용된 예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어가 음소문자인 한글 자모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언어인 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채팅이나 기사 댓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보이는 ‘ㅉㅉ(←쫄쫄), ㅋㅋㅋ(←ㅋㅋㅋ), ㅎㅎㅎ(←하하하)’와 같이 의성어를 축소시킨 형태는 ‘두음소형’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처럼 이재현(2010)에서는 ‘머리글자말’ 또는 ‘두음소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영제(1995)에서는 이전 논의에서 ‘두음어, 두자어, 두문자어, 어두어, 두음절어’ 등으로 다루어지던 개념은 ‘두음어’란 용어로 지칭되어야 함을 논하고, 이 ‘두음어’ 안에 ‘두음절어’와 ‘두자음어’가 포괄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두음어’는 ‘즐감(←즐거운 감상), 모쓸(←모태 쓸로)’ 등을 말하고, ‘두

3) ‘약칭어’는 원래 있던 단어나 구를 줄여 이르는 말이기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말인 ‘혼성어’와는 생성 방식이나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이선영(2016)에서 다룬 바 있다.

자음어'는 ‘스ㄱ(←즐감), 모ㅅ(←모쫄)’과 같은 형태를 지칭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술적인 논의는 아니나 인터넷상의 글이나 신문기사에서는 ‘두자어’에 대한 일상용어로 ‘초성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단어 각 음절의 초성을 이용하여 원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에 기대어 만든 이름을 보인다. 이처럼 어떤 단어 각 음절의 첫 자음만을 표기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자어’는 ‘극단적으로 줄여쓰기’, ‘자음만으로 줄여 적기’, ‘머리글자말’, ‘두음소형’, ‘두자음어’, ‘초성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음절이 생성되는 한국어의 모아쓰기 표기 방식을 생각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용어들 모두가 표기의 특징을 잘 드러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니면 새롭게 ‘초성어’라는 명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두자어’란 용어가 각 음절의 첫 음소만을 결합하여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영어의 ‘acronym’과 공통점이 없지 않다고 보아 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두자어’로 이 대상을 정의하고자 한다.⁴⁾

- (2) ‘두자어’ :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절단하여 만든 형태로, 원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약칭어.⁵⁾ ‘감사’를 뜻하는 ‘ㄱㅏ’, ‘흐흐’를 뜻하는 ‘ㅎㅎ’ 등이 그 예이다.

Ⅲ. 두자어의 생성 원인

한글은 음소 단위의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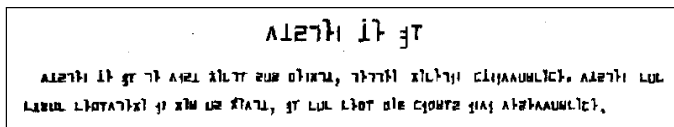
4)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가 ‘두자어’라는 점에서도 이 용어를 선택하고자 한다.
5) 두자어는 자음만으로 된 단어로, 모아쓰기 방식의 한국어 표기에 비하여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후술하게 되듯이 두자어는 약칭어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로 할 때의 장점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4) 첫째, 소리의 나는 이치와 일치한다. 둘째, 가로글씨는 쓰기가 쉽다. 셋째, 가로글씨는 내리글씨보다 보기가 훨씬 쉽다. 넷째, 가로글씨는 박기(인쇄하기)가 쉽다. 다섯째, 가로글씨는 읽기가 쉽다. 여섯째, 가로글씨는 오늘의 맞춤법의 고통을 많이 경감한다. 일곱째, 세계의 수백종 문자는 가로글씨가 가장 자연적임을 증시(證示)한다.

최현배의 논의에서 제시한 가로쓰기는, 음절 중심의 모아쓰기와 대조하여 ‘풀어쓰기’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5)



(5)는 최현배(1937:500)에 제시된 가로쓰기의 예시인데,⁹⁾ 이를 모아쓰기로 다시 표기하면 (6)과 같다.

(6) 솔개와 여우

“솔개와 여우가 서로 친구를 맺고,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솔개는 높은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여우는 나무 밑 덩굴에서 살
았습니다.”

8) 가로쓰기[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이익섭(1985)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9) 모음 앞의 음가 없는 ‘ㅇ’은 표기하지 않았고, 모음 ‘ㅡ’는 ‘U’처럼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5)를 보면, 글자가 음절 단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음소 단위로 표기되어 있어서 자음과 모음의 분리가 모아쓰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풀어쓰기는 이처럼 실험적인 표기 방식으로 제시된 적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만약 (5)와 같은 풀어쓰기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면 영어의 ‘acronym’과 같은 두자어의 생성이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 풀어쓰기가 표기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실제 두자어의 생성은 훨씬 후대에 확인된다.

1930년대의 풀어쓰기 표기 이후 자음이 음절 단위로 쓰이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예는 전상국의 소설 ‘동행’(1963)에 나온다고 한다.¹⁰⁾

(7)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
ㅎㅎ...

(7)에 나타난 ‘ㅎㅎ’의 사용은 최근 사용되는 두자어 사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관련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작가가 사용한 특별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최근 쓰이는 두자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확인되는 두자어의 쓰임은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양이다.

(8) 서울대학교의 정문 ‘샤’
거대한 ‘샤’ 모양의 정문은 국립법인서울대학교를 가장 상징적

10) “문헌상 처음으로 초성체가 등장하는 것은 무려 57년 전인 1963년이다. 주인공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행’으로 당선된 소설가 전상국. 1963년 1월 4일 조선일보에 실린 ‘동행’의 마지막 부분엔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 전상국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ㅎㅎ’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ㅎㅎㅎㅎㅎ...초성체의 기원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조선일보 2020.7.4.)

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가 관악구 현 위치에 자리잡으면서, 학교 상징의 기초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문은 서울대학교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국립법인서울대학교의 머릿글자인 ‘ㄱ’ ‘ㅅ’ ‘ㄷ’의 형상을 본뜬 디자인은 열쇠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교의 교훈, ‘진리는 나의 빛’의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8)은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상징 중 정문 모양에 대한 설명과 그 사진이다(<https://www.snu.ac.kr/about/symbol/symbol>). 그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양은 ‘국립법인서울대학교’의 머릿글자인 ‘ㄱ’, ‘ㅅ’, ‘ㄷ’을 본뜬 모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두자어의 사용 방식과 동일하다.¹¹⁾ 이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1963년과 1975년 당시에 두자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다음으로 확인되는 두자어는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통신언어이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어형은 ‘ㅋㅋ’나 ‘ㅎㅎ’처럼 웃음소리를 표기한 것인데, 검색 결과 확인되는 출현 시기는 1997년경인 것으로 확인된다.¹³⁾ 이러한 어형은 감정을 문자로만 전달해야 하는 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어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ㅋㅋ’나 ‘ㅎㅎ’가

11) 그 설명을 보면 이를 ‘샤’로 읽는다고 하는데, 이는 ‘ㄱ,ㅅ,ㄷ’을 연결하여 한 글자로 읽은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앞의 예 (1)에서 본 영어의 ‘acronym’에 해당 하는 흥미로운 사례라 하겠다.

12) 한글 자모를 소재로 한 제품 디자인 등도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이것은 두자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13) 검색엔진 ‘다음’(<https://www.daum.net/>)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의 인터넷 자료 검색이 가능한데, ‘ㅎㅎ’와 ‘ㅋㅋ’의 용례를 검색했을 때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내 인생의 압축기ㅎㅎ”(1997.3.18.), “내가 혼자 거의 다 했다는 얘기ㅋㅋ”(1997.4.28.)

초성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원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에서 각 음절의 초성이 ‘ㄱ’인 2음절 단어를 검색해 보면, 웃는 소리나 모양과 관련한 단어로는 ‘켁켁, 칼칼, 킁킁, 킁킁’이 확인된다.¹⁴⁾ 이 가운데 어감상 “나오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잇따라 터뜨리는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킁킁’이 가장 근사한 의미의 단어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사전에서 각 음절의 초성이 ‘ㅎ’인 2음절 단어를 검색해 보면 웃는 소리나 모양과 관련한 단어로 ‘하하, 해해, 허허, 헛헛, 호호, 호호, 희희, 히히’가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하하’나 ‘호호’가 가장 대표적인 웃음소리로 보인다. 그렇다면 ‘ㄱㄱ’은 ‘킁킁’, ‘ㅎㅎ’은 ‘하하’나 ‘호호’에서 온 두자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나 민간어원에서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크크’를 더 보편적인 웃음소리로 보고 있다.¹⁵⁾ 우리는 이에 ‘ㄱㄱ’과 ‘ㅎㅎ’가 각각 ‘크크’와 ‘호호’에서 온 두자어인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한국어의 초기 두자어에 대한 논의는 통신언어에 쓰이는 다른 형태들과 묶여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옥미(2003:52)에서는 ‘ㄱㄱㄱ(크크크), ㅎㅎㅎ(호호호), ㄷㄱㄷ(축하합니다), ㄱㅅㄱㅅ(감사감사)’을 외제어의 한 가지 양상인 ‘극단적인 줄여쓰기’로 분류한 바 있고, 이정복(2016:58~59)에서도 ‘ㄱㄱㄱ(크크크), ㅇㅅ(인정), ㄴㄴ(노노)’ 등의 표기를 ‘자음만으로 줄여 적기’라고 명명하고, ‘붙여 적기’와 대등한, 통신언어 사용의 한 가지 양상으로 다룬 바 있다.

14) 이하에서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15) ‘ㄱㄱㄱ’를 ‘크크크’ 정도로 읽어야 그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신문기사도 확인된다.

“혼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네티즌들은 이렇게 자판을 두드린다. ‘ㄱㄱㄱ’. 한글자음의 열한 번째 글자인 ‘ㄱ’을 연달아 치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읽어 보자. ‘킁킁킁킁’이 아니다. ‘크크크’ 정도로 읽어야 ‘ㄱㄱㄱ’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 (‘21세기 문화어 사전/ㄱㄱㄱ’ 한국일보 2001.9.28.)

(9ㄱ)은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음소 단위로 가로로 배열한 외계어의 예이다. (9ㄴ)은 음소 ‘ㄱ’을 영문자 ‘g’로 대체한 예이고, (9ㄷ)은 음절 ‘사’를 음소 ‘s’과, ‘t’와 표기의 유사성이 있는 영문자 ‘t’로 대치하여 ‘st’로 표기한 예이다. 이러한 표기들은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에서 벗어나 음소 단위의 자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표기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10)은 최근 쓰이는 이른바 ‘야민정음’의 몇 가지 예인데 음절 ‘야’ 대신 영문자 ‘O’과 ‘F’을 표기하거나, 음절 ‘리’ 대신 형태의 유사성이 있는 숫자 ‘2’와 ‘1’을 표기한 경우이다. 이러한 표기 역시 음절보다는 각각의 음소를 분리하여 그와 유사한 모양의 표기로 대치한 것이라 하겠다. ‘뜨뜨’는 ‘비버’를 90도 돌려 표기한 것이고, ‘띵곡’은 ‘명’ 대신 이와 유사한 형태의 표기인 ‘띵’을 쓴 표기인데 이러한 것 역시 단어의 원래 의미보다는 음소나 음절 형태의 유사성에 집중한 결과 만들어낸 표기들이라 할 것이다.

특히 (9)는 한글의 모아쓰기를 따르지 않고 새롭게 표기를 만들어낸 것들로 자음과 모음의 분리가 특징인바, 두자어를 생성할 수 있게 한 기반으로 보인다. 또한 (10)의 표기 역시 단어를 음절 단위로 보기보다는 자음과 모음 기호의 유사성에 집중함으로써 모아쓰기 음절의 해체를 보여준 형태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표기들의 출발은 일종의 언어유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표기들이 모아쓰기 방식의 음절 구조에서 벗어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예전의 풀어쓰기 방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신언어에서 나타난 ‘음절의 해체’ 현상, 즉 음절을 음소 단위로 해체하여 재해석하는 것이 두자어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겠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어 두자어의 출발점은 상대에 대한 호감이나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는 ‘ㅎㅎ’와 ‘ㅋㅋ’였다. 이후 나타나는 두자어는 ‘ㄷㅋㄷㅋ’인데, 이 말은 ‘축하축하’를 소리나는 대로 연철표기한 ‘추카 추카’가 먼저 생성되고 이후 이의 초성을 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⁸⁾ 인간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은 정보 전달도 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문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자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겠다.¹⁹⁾ 또한 두자어의 사용은 표기의 간결성에도 관련이 있다. 음절 단위의 표기를 위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전부 입력하는 것보다 두자인 초성만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논의에서는 두자어와 외계어, 두자어와 야민정음 등을 동일선상에 두고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출발점은 동일하였는지 몰라도 그 변화 양상은 전혀 다르다고 본다. 외계어나 야민정음 등은 문자의 변형 등을 통하여 이질적인 표기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어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두자어는 의미의 명확성과 표기의 간결함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통신언어와 2000년대 통신언어, 2020년대 통신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계어 등은 지금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에 비해 두자어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최근에는 남녀노소나 매체를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자어에 익숙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특성에 근거한다고 본다.²⁰⁾

2. 의미의 응축

이제 의미의 문제를 보기로 하겠다. 두자어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두자어가 원 단어의 의미를 동일하게 표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18) 검색엔진 ‘다음’에서 검색한 결과, ‘추카추카’는 1996년부터 보이지만 ‘ㄷㅋㄷㅋ’는 2000년부터 확인된다. “지연공주~ 추카!”(1996.6.21.) “오늘 상 받은 모든 이들에게..ㄷㅋㄷㅋ”(2000.4.10.)

19) ‘잘 가~’나 ‘알았어^^’처럼 자판을 이용한 물결표(~)나 웃음 표시(^^)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할 수 있다.

20) 문자메시지 등에서 ‘ㅎㅎ’와 같은 두자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의미 응축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이선영·정희창(2019)에서는 단어나 구에 나타나는 절단의 문제를 ‘의미 응축’이란 개념으로 논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단어나 구의 일부가 절단된 상태로 원 단어나 구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 응축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 ‘슈퍼마켓’에서 절단된 ‘슈퍼①’, 관용구 ‘시치미를 떼다’에서 절단된 ‘시치미①’은 원 단어나 구 내부 성분인 ‘슈퍼②’, ‘시치미②’와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 층위는 다르다고 보았다. ‘슈퍼①’은 ‘슈퍼마켓’의 의미가 응축된 단어이고, ‘시치미①’은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가 응축된 단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응축 현상은 절단이 일어나는 한국어 단어나 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 응축이 두자어에서도 확인된다고 본다. 앞선 논의에서 다른 의미 응축이 표기가 동일한 단어들간의 이질적인 의미 층위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자어에서 확인되는 의미 응축은 원 단어의 초성과 표기는 동일하나 ‘음절의 초성’과 ‘음절 전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읽는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어 의미 응축 현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11) ㄱㅅ[감사]

‘감사’를 줄여 두자어로 ‘ㄱㅅ’으로 표기할 때, 이 ‘ㄱㅅ’이 의미 응축이 일어난 약칭어이다. ‘감’을 줄여 쓴 (11)의 ‘ㄱ①’은 ‘감’의 초성으로 쓰인 ‘ㄱ②’와 동일하지 않다. 초성인 ‘ㄱ②’는 음절의 일부분인 음소로서 ‘기역’으로 읽히지만, 두자어로 의미 응축이 일어난 ‘ㄱ①’은 ‘감’이 응축된 형태로서 ‘기역’이 아닌, ‘감’으로 읽힌다. 그래서 의미 응축이 일어난 두자어 ‘ㄱㅅ’이란 표기는 ‘감사’라고 읽게 되는 것이고, ‘기역시옷’이라고는 읽지 않는다.

(12)

문자	위치	기능(의미)	읽기
ㄱ①	두자어 ‘ㄱㅅ’의 첫 글자	‘감’에서 의미 응축이 일어난 형태	‘감사’의 첫음절인 ‘감’으로 읽음
ㄱ②	‘감사’ 첫음절 초성	초성인 음소	음절의 초성인 ‘기역’으로 읽음

이처럼 두자어를 의미 응축으로 이해할 때 표기는 동일하나 이를 자모의 이름으로 읽지 않고, 원 단어로 읽는 현상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단순히 표기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감사’를 두자어 ‘ㄱ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표기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원 단어의 의미도 그대로 남아 있는 약칭어의 문제라고 보아 의미 응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어 두자어는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절단하여 나열하는 약칭의 형태로, 원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표의하는 의미 응축 현상을 보여 준다.

(13) 두자어

형식	원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절단하여 나열함
의미	원 단어의 의미와 동일. 의미 응축 발생
발음	원 단어와 동일하게 읽음

(14) ㅎㅎ / ㅇㅋ / ㅇ스

(14)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자어의 일부 예인데, 이 두자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은 이것들을 각각 ‘ㅎㅎ / 오케(이) / 인정’이라고 읽지, ‘히웅 히웅 / 이웅 키웁 / 이웅 지웁’이라고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 응축의 기능을 하는 약칭어로서의 두자어는 한국어 약칭어 가운데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원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줄여 표의할 수 있게 해준다 하겠다.

IV. 두자어의 사용 양상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 표기에서 두자어가 생성된 배경과 그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두자어의 출발점은 음절 표기의 해체와 의미 응축이다. 이처럼 간결한 표기가 활발하게 쓰이게 된 배경에는 통신언어에서 필요한 간결성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두자어는 사실 ‘한글 파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부정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SNS의 발달과 통신언어의 일상언어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더욱 활발히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유행했던 이른바 ‘외계어’가 그 표기의 난해성과 해석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잠시 유행되다가 이내 사라졌듯이 어떠한 언어 현상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은 규범이나 제약 등으로 해결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잘 관찰하고 그 형성 원인과 사회적 기능 등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음절의 초성을 연결하여 원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두자어 표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심지어 두자어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의식이 생기기도 전부터 쓰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언어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이는 두자어는 앞에서 논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 외에 일상생활에서 두자어가 쓰이는 양상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두자어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두자어가 먼저 제시되고 이것이 원 단어를 찾아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원 단어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두자어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1. 두자어에서 원 단어로

첫 번째 볼 사용 양상은 한글 퀴즈 프로그램에서의 사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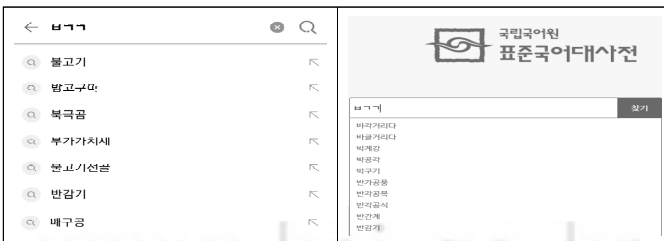
(15)



(15)의 왼쪽 그림은 2003년 11월 5일에 방영된 KBS TV의 <우리말 겨루기> 제1회 문제 화면인데, ‘ㅂㅅㅇ ㅈㅎ’이라는 첫 글자만을 보고 원 단어인 ‘별들의 고향’을 알아맞히는 방식이다. 오른쪽 그림은 2023년 11월 11일 방영된 tvN의 <놀라운 토요일> 289회 화면인데, 역시 초성인 ‘ㅂㅅㅇㅇㅇㅇㅇㅇ’을 보고, ‘부산매운어묵라면’이라는 원 단어를 맞히는 방식의 퀴즈이다. 이러한 예들은 단어의 첫 자음들을 보고 원 단어를 맞히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단어의 초성이 단어에서 대표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퀴즈는 2003년부터 확인되는데, 이것은 당시 두자어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나 두자어의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위 퀴즈에서 참여자들은 ‘ㅂㅅㅇ’을 ‘비읍 디귤 이응’이라고 읽지 않고, ‘배달의(?)’, ‘부동의(?)’ 등 처럼 의미 있는 음절을 생각할 것인바 이것이 바로 ‘ㅂㅅㅇ’을 어떤 단어의 두자어로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두자어는 단어 검색 등에서도 확인된다.

(16)



(16)의 왼쪽은 검색엔진 네이버(<https://www.naver.com/>)의 검색창에 두자어 ‘ㄷㄱ’을 입력했을 때 자동완성기능으로 아래에 표시되는 단어들의 예이고,²¹⁾ 오른쪽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ㄷㄱ’로 검색했을 때 표시되는 단어들의 예이다.²²⁾ 이것들 역시 두자어로 원 단어를 찾아가는 방식의 한 가지 예시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휴대전화에서 초성만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을 검색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예를 들어 연락처 검색창에 ‘ㅎㄱ’을 입력하면, ‘홍길동, 한가은, 학교, 한국대’ 등이 검색되는 식이다. 이 역시 두자어가 활용된 사례라 하겠는데, 이처럼 두자어는 초성의 연결만으로도 원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 검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 경우 두자어가 한 단어와 일대일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자어에 해당하는 단어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자어에서 원 단어로의 활용 예라고 할 수 있다.

2. 원 단어에서 두자어로

앞에서 보았지만 두자어의 원래 기능은 단어를 약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에서 더 나아가 두자어가 은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특정 회사명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비속어나 금기어 등을 입력하지 못하게 제약을 해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언중들은 두자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제약을 피할 수 있다.

(17) ㄱ. 모의지원사이트 중에는 ㅈㅎㅅ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맞지요?

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ㅅㅅ를 했어요.

21) ‘불고기, 밥고구마, 북극곰, 부가가치세, 불고기전골, 반감기, 배구공’ 등이 보인다.

22) ‘바각거리다, 바글거리다, 박계강, 박공각, 박구기, 반가공품, 반각공목, 반각공식, 반간제, 반감기’ 등이 보인다.

(17ㄱ)은 고유명사 ‘진학사’ 대신 두자어 ‘스ㅎ스’를 쓴 예이고, (17ㄴ)은 금기어 ‘설사’ 대신 ‘스스’을 쓴 예이다.²³⁾ 이처럼 두자어는 금지어나 금기어나 비속어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두자어는 의성의태어 대신 쓰이기도 한다.

- (18) ㄱ. 나만 몰랐어ㅂㅅㅂㅅ
 ㄴ. 그럴 수가ㅎㅅㅅ
 ㄷ. 좋아요ㅎㅎ / 좋아요ㅎㅎㅎㅎㅎㅎ

(18)은 각각 ‘부들부들’, ‘후덜덜’, ‘호호’, ‘호호호호호호’ 대신 두자어를 쓴 경우인데, 이러한 표기들은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 특히 ‘ㅎㅎ’나 ‘ㅋㅋ’의 경우 기분 좋은 정도에 따라 ‘ㅎ’이나 ‘ㅋ’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한다.²⁴⁾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두자어의 생성 원인과 그 사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두자어는 한국어에서 단어 각 음절의 초성만을 절단하여 만든 형태로, 원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약칭어임을 확인하였다. 두자어가 생성된 배경에는 음절의 해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미의 응축 현상이 있음도 보았다. 두자어는 원래 통신언어에서 출

23) ‘설사’가 금기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보면 이러한 표기가 심심찮게 보인다.

24) 임지룡(1997:378)에 따르면, 인지의미론의 도상성에서는 양의 원리로 개념의 양과 형태의 양이 비례함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즉 개념의 양이 많으면 형태의 양도 많고, 개념의 양이 적으면 형태의 양도 이에 비례하여 적어지는 식인데,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재미있을수록 더 많은 ‘ㅎㅎ’나 ‘ㅋㅋ’를 표기하는 것도 이러한 도상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용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외계어나 야민정음 등 언어유희와 같은 통신언어는 일시적으로 쓰이다 사라진 반면, 통신언어에서 출발한 두자어는 그 표기의 간결성과 의미의 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두자어의 사용 양상으로 두 가지를 보았는데 먼저 두자어가 제시되고 이어서 원 단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퀴즈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검색어의 활용 등을 보았다. 다음으로 원 단어로 두자어를 만드는 방식은 금지어나 금기어, 비속어 등을 대신하는 경우, 의성의태어로의 기능을 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였다. 어떤 단어가 필요하여 생성되었다가 사회성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 한국어에서 두자어와 같은 약칭어가 생성되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 역시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현정(2002), 「통신언어-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국어학』 39, 국어학회, 251-279.
- 권경녀(2021), 「한국어 두음절어와 혼성어의 형성과 등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강영배(2018), 「급식체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청소년문화포럼』 53,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206.
- 강옥미(2003), 「외계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숙명어문논집』 5, 숙명여대, 45-67.
- 강옥미(2004), 「해체주의 관점에서 본 통신언어의 언어유희」,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81-113.
- 강옥미(2018), 「야민정음과 급식체의 해체주의 표현연구」, 『인문학연구』 56,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325-349.
- 고영근·남기심(2009), 『중세어 자료 강해』, 집문당.
- 김명희(1997), 「현대국어의 두자어 형성에 대한 일고찰」, 『연구논문집』 37, 성신여대, 1-19.
- 김상민(2021), 「혼성어와 두음절어의 이해를 위한 전략」, 『한국어의미학』 74, 한국어의미학회, 183-219.
- 김정윤(2020), 「4음절 형식 두음절어의 특징과 사용 요인」, 『반교어문』 56, 반교어문연구, 133-153.
- 민현식(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교육』 6, 한국문법교육학회, 52-113.
- 손남익(2007), 「1960년대 신문 두자어 연구」,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303-334.
- 원자혜(2013), 「두자어 연구-디지털 매체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6),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69-291.

이선영·정희창(2019), 「절단 현상과 의미 응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5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69-289.

이영제(2015), 「한국어의 두음어화 연구-통사적 구성의 두음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65-198.

이익섭(1985),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의 표의성에 대하여」, 『국어생활』 3, 국어연구소, 16-31.

이재현(2010), 『현대국어 축소어형의 사용양상 연구』, 도서출판 역락.

이정복(2016), 「인터넷 통신 언어의 변모 양상과 연구 현황-2006년 이후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7-74.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정한데로(2019),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서강대 출판부.

최현배(1937ㄱ), 「가로글씨의 이론과 실제(1)」, 『한글』 5의2, 357-363.

최현배(1937ㄴ), 「가로글씨의 이론과 실제(2)」, 『한글』 5의3, 405-412.

최현배(1937ㄷ), 「가로글씨의 이론과 실제(3)」, 『한글』 5의4, 460-463.

최현배(1937ㄹ), 「가로글씨의 이론과 실제(4)」, 『한글』 5의5, 493-500.

❖ ABSTRACT

The Formation and Use of Korean Acronyms

Lee, Seonyeong

Hongik University

In this paper, we looked at how acronyms are created and how they are used in the Korean language. First of all, we found that acronyms are abbreviations of words in Korean that express the same meaning as the original word by cutting only the initial consonants of each syllable. We also saw that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such acronyms involves the perception of the syllabic decomposition, and the phenomenon of semantic condensation. In addition, we found that although acronyms wer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s, there were examples of their use from earlier periods. We also found that the use of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s such as Oegye-eo(외계어) or Yaminjeongeum(야민정음) has disappeared after being used for a short period, while acronyms that originated from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are still being used actively to this day due to their conciseness and clarity of meaning. In fact, their usage range is gradually expanding. And we looked at two cases in terms of the use of acronyms. First, acronyms are presented and the original word is found in them. This is used in quiz programs and search terms. Second, the original word becomes an acronym. This includes cases where it replaces prohibited words, taboo words, slang, etc., or when it functions as an onomatopoeia. Just as it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a word is created out of

necessity and then disappears when it does not gain social acceptance, the creation and various uses of abbreviations such as acronyms in Korean are also a linguistic phenomenon that needs to be observed and studied.

Keywords: Acronym, Abbreviation, Syllabic Decomposition, Semantic Condensation

- 논문투고일 : 2024. 01. 10
- 심사완료일 : 2024. 01. 31
- 게재확정일 : 2024. 02. 06